



지난해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대거 한국에 온 중국 관광객 요우커로 북적이는 서울 명동 거리. 2017년 외래관광객 2000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요우커의 방문 규모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뉴스시

요우커 편중현상 극복해야 2000만시대

(중국인 해외관광객)

신년기회

한국, 관광대국으로 가는 길

전체 43% 집중... 위안화 약세 대비해야
패키지보다 개별관광객에 초점 맞춰야
관광공사, 숙박·교통·안내체계 등 점검
ICT 강국 장점 살려 와이파이존 등 구축
스토리텔링 통한 지역 콘텐츠 육성 중요

올미년 청양의 해가 시작됐다. 2015년은 한국이 관광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해 한국에 온 외국관광객은 1400만 명을 넘었다. 1300만 명의 일본보다 100만 명이 많다. 한국은 2017년 외래관광객 2000만 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남은 기간은 3년. 2015년은 '관광객 2000만 시대'에 다가서는 첫 도약이 시작되는 해다.

● 패키지→개별관광... 스마트투어로 차별화

한국은 2013년 외래관광객 1217만여 명이 방문해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통계에서 세계 22위를 기록했다. 1400만 명을 넘는 2014년에는 20위권으로 올라갈 전

망이다. 하지만 한 해 8000만 명 이상이 찾는 프랑스를 비롯해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관광대국으로 꼽히는 나라들과는 격차가 크다. 같은 아시아권에서도 중국(4위), 태국(10위), 말레이시아(11위), 홍콩(12위)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변주석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3년 뛰기에서 첫 도약이 좋아야 목표에 성큼 다가서는 것처럼 1400만 유치는 2000만 시대로 향하는 중요한 도약이다"며 "2015년부터 매년 200만 명씩 추가 유치하면 2017년 2000만 명이 가능할 것이다"고 올해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해마다 200만명씩 시장을 키우려던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최근 외래관광객은 패키지보다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객(FIT)으로 무게중심이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문화관광연구원의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럽과 미주는 개별관광객 비중이 98%에 달하고, 단체 중심이던 중국도 절반이 넘는 57%가 개별관광객이다.

개별관광객 급증에 맞춰 관광공사는 전담팀을 만들어 숙박, 교통, 안내체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ICT 강국'의 특성을 살려 전국 주요 관광지 및 관광안내소에 무료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Wi

Fi) 존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런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다국어 모바일 앱'이나 '스마트투어 오디오 가이드' 같은 관광 관련 앱을 외국인 개별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다.

● 지방관광 활성화되어야 2000만 시대 가능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외래관광객 1400만 명 기념행사에서 "2000만 명 유치를 조기에 달성하는 데는 수도권에 집중된 외래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지금처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인프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 관광시장을 키우려던 한 번 방문했던 외국인이 다시 찾아오는 '리피터'(재방문객)를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문화부 김철민 관광정책관은 "2015년을 지방관광 활성화 원년으로 삼아 지원할 방침이다"면서 "종가음식처럼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지역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야영장 별도등록제를 통한 캠핑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 요우커 편중, 엔·위안·루블화 약세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지난해 1400만명의 외래관광객 중 가장

많은 비중은 역시 중국인이다. 610만명의 요우커(중국인 해외관광객)가 한국에 왔고 이어 일본인(230만명), 미국인(77만명)이 뒤를 이었다. 외래관광 전체시장의 43%를 중국인이 차지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관광공사 이재성 국제관광본부장은 "단일 국가로는 중국이 가장 많지만, 중국을 제외한 외국관광객도 870만명이나 된다"며 "중동과 이슬람권, 러시아 시장도 급성장해 이를 육성해 시장 편중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침체에 빠진 일본 방문시장은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에 이어 중국의 위안화도 올해 약세를 전망하는 시각이 많다. 유가 하락으로 경제위기를 맞은 러시아도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모두 관광산업의 수익과 직결되는 상황이다. 관광공사 이재성 본부장은 "루블화 폭락으로 시장이 16% 정도 축소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위안화 약세에 엔저가 지속되면 상황이 심각해 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을 집중 마케팅하고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의료관광처럼 중성도 높은 시장을 공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kobaukid

2015년 자동차 분야 달라지는 점

하이브리드 사면 100만원 지원

2000cc 이상 신차 구매시 소비세 6%서 5%로 인하
보험은 26등급 세분화·수리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올해 자동차 관련 제도는 개별소비세 인하,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지원, 운전면허 기능시험 강화, 자동차 보험 차종별등급제도 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있다.

먼저 세제 혜택을 살펴보면 2000cc 이상 신차 구매시 개별 소비세가 6%에서 5%로 인하된다. 차량 가격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 가격이 낮아진다.

하이브리드 차량(탄소배출량 97g/km 이하) 구매 보조금 100만원도 지원된다. 대상 차량은 현대차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 토요타 프리우스 V, 렉서스 CT200h다.

자동차 보험 제도도 달라진다. 차종별등급 제도가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세분화된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차종 중 34종, 수입차는 34개 중 32개 차종의 등급 인상이 결정됐다. 수입차의 경우 자차보험료는 평균 11% 가량 오른다.

5월1일부터는 자동차 종합 및 전문 수리업,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된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자동차 안전과 관련한 변화도 눈에 띈다.

자동차 사고 발생을 알려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가 보급된다. 1월말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입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다시 강화된다. 폐지됐던 T자, S자형 등의 굴절·곡선도로와 방향 전환, 경사로 등의 코스도 재추가될 전망이다. 민자고속도로에서도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적체해결서비스' 또는 각 민자법인 콜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신차는 1월부터 차체자체제어장치(EESP, ESC, VDC), 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TPMS)를, 7월부터 주간주행등 의무 장착해야 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BC카드로 현대차 못 산다

수수료율 협상 최종 결정...5일부터 적용

현대차와 BC카드의 카드복합할부금 수수료율 협상이 최종 결정되면서 5일부터 소비자들은 BC카드로 현대자동차를 살 수 없게 됐다.

현대차는 BC카드가 취급하는 체크카드 수수료율(1.3%)도 카드복합할부 수수료율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BC카드가 1.5% 주장을 고수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BC카드 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적격 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책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1.3%는 적격 비용 이하 수수료율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12월31일부로 BC카드와의 계약은 종료됐지만 BC카드와의 카드가맹점 계약 종료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며, BC카드와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BC카드 역시 실제로 고객이 결제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5일부터이기 때문에 4월까지 추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변화의 여지를 남겼다. BC카드 관계자는 1일 "양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BC카드를 통해 현대차를 구매한 고객 중 복합할부 이용 고객은 약 5.6%. 시장점유율이 높은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도 현대차와의 가맹점 계약이 각각 내년 2월과 3월에 만료된다.

원성열 기자

강원랜드 새해맞이 '풍선날리기' 행사



강원랜드는 1일 올미년 새해를 맞아 신년 해맞이 '웰컴 2015'(사진) 행사를 가졌다. 마운틴 탑에서 열린 행사에는 합승희 대표 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신년 첫 번째 해돋이를 보기위해 찾은 고객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마운틴 스키하우스에서 준비된 떡국 2015인분을 나눠 먹고 해발 1340m 마운틴 탑에서 한해 소망을 담은 풍선을 하늘로 날렸다. 강원랜드는 마운틴콘도 C동과 강원랜드 호텔에 행사장을 마련해 타로점, 연회장 만들기 등 신년이벤트를 연다.

LG생활건강, 한국 궁중문화 유산 찾기 캠페인

LG생활건강은 한국의 숨겨진 궁중 문화유산 찾아가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부터 '한국 궁중문화 유산과 함께 하는 후(Who With Korean Heritage)'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LG생활건강이 처음 선보이는 '후 공진행: 기원전 크림 헤리티지 에디션'은 신년에 왕과 왕후에게 복을 진상하며 바쳤던 궁중지방을 모티브로 제작한 패키지와 궁중의 황금색 북주머니를 내장해 소장 가치를 더했다. 또 기존 50ml 용량에서 100ml로 2배 증량했으며, '공진행: 풀 플랜저(40ml)'도 무료 증정한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simss23

호텔 등급제, 무궁화 사라지고 국제기준 5성 체제로

2015년 여행·레저 분야 달라지는 점

스키장·수영장 등 안전시설 기준 등 강화

2015년부터 여행·레저 분야에서 새로 생기거나 달라지는 것들이 적지 않다.

우선 호텔 등급제가 달라진다. 기존 무궁화 숫자로 표시하던 호텔등급제는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어 신뢰도가 떨어졌다. 올해부터 호텔 등급을 국제 기준에 맞춰 5성(별) 체제로 바꾸고 평가기관도 한

국관광공사로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평가의 전문성과 함께 등급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일반야영장의 등록기준을 마련해 미등록 야영장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 관광산업에는 자동차야영장만 포함돼 일반야영장은 관리사각지대에 놓였다. 이번엔 새로 관광산업에 포함하고 자동차야영장 등록기준을 완화해 캠핑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무주 태권도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도 본격 실시한다. 게임, 드라마, 영화 등 여러 장르에서 태권도원을 소재로 한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작은 투자자와 연계해 제작을 지원한다. 무주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도 추진해 한국사 템플스테이, 반딧불 축제, 무주군 체험농장 등을 상품으로 개발한다.

장애이노아 노인들도 이동의 불편이나 활동의 제약 없이 관광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매년 전

국 관광지나 관광사업장 5개소를 선정해 2억 원 한도 내에서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조관광산업정책도 확대 개편해 2월 중에 예비 창조관광사업을 발굴해 40개 사업체에 사업당 3000만원을 지원하고, 창조관광산업펀드도 올해부터 2019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조성 운영한다.

이밖에 레저인구의 증가에 맞춰 스키장과 수영장 안전관리와 수질기준도 강화한다. 스키장은 안전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 구조요원과 리프트 승차장 보조인원을 늘리도록 했다. 수영장도 탁도 기준을 높이고 비소, 수은, 알루미늄 등 중금속과 관련된 기준을 신설했다.

김재범 전문기자

이동통신 지원금 확대...요금제 따라 사실상 무료폰

2015년 이동통신 분야 달라지는 점

새해벽두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다. 상한 규제를 받지 않는 15개월 이상 된 단말기에 출고가만큼의 보조금을

지원해 공짜폰을 만드는 등 가입자 유치를 위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SK텔레콤은 1일부터 '갤럭시S4'와 '갤럭시 노트' 2개 단말의 지원금을 상향조정했다. 갤럭시S4는 최대 50만원(LTE100기준), 갤럭시

노트S는 최대 40만원(LTE100기준)으로 각각 상향했다. SK텔레콤은 앞서 지난달 27일 '갤럭시노트3'와 'G2', '갤럭시S4 LTE-A' 등 7개 단말 대상 지원금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KT도 1일부터 '갤럭시노트3'의 지원금을 기존 25만원에서 88만원(순완전무한99기준)으로 63만원 올렸다. 이는 출고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실상 무료 구매가 가능해졌다. 순완전무한51 요금제를 선택하고 단말 구입 시 최대 36만원 할인을 제공하는 슈퍼카드를 발급받아도 무료 수준의 구매가 가능하다. KT는 또 지난달 31일부터 '갤럭시알파'의 출고가를 기존보다 25만3000원 내린 49만5000원으로 책정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